꽃－색

희망의 떨림 … 꽃이 흔들린다

문명호 초대전 '꽃의 향연'
31일까지 전남대병원 갤러리

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진다. 전남대병원 갤러리는 오는 31일까지 서양화가 문명호씨를 초대해 '꽃의 향연'전을 연다. 문씨의 열번째 개인전이다.

문씨는 이번 전시에서 해바라기, 장미, 맨드라민, 목단, 해당화 등 꽃을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색과 점으로 형상화한 이미지를 통해 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움직임과 향기, 색 등을 화폭에 담았다.

특히 단순한 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보다는 꽃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음율적 인상을 담아 몽상적으로 묘사했다. 그 속에서는 꿈과 희망이 담긴 생동감도 느껴진다.

전남도전,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인 문씨는 그동안 400여차례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남농미술대전 등 심사위원을 지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무제

실과 철사로 엮은 관방천 징검다리

보라리 '긴 시간, 짧은 공간'전
6월 17일까지 담양대담미술관

지난 주말 찾은 담양 대담미술관에서는 실과 철사로 표현된 관방천의 징검다리를 만날 수 있었다.

현대미술작가 보라리씨는 '긴 시간, 짧은 공간'을 주제로 미술관 주변 관방천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의 심상 이미지를 미술관에 드로잉한 설치미술작품으로 선보이고 있었다. 전시는 6월17일까지다.

관방천의 징검다리를 건너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시장 입구에 놓인 의자에 걸터앉아 또 다른 느낌의 징검다리에 빠져들었다. 작가는 검은색 실로 뜨개질해서 선을 만들고, 철사를 이용해 형태를 표현했다. 일상적인 느낌을 주는 뜨개질로 탄생한 선과 면으로 구성된 검은색 징검다리는 기하학적이면서도 유기적인 형태로 어우러지면서 공간을 이어줬다.

작가는 "뜨개질에 나 자신을 투영하고, 그렇게 만든 작품을 공간이라는 캔버스에 투영했다"고 말했다.

보라리씨는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회화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 현재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 서울과 미국, 오스트리아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문의 061-381-008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소소한 공간에서 찾는 소소한 행복

문화가 흐르는 공간

2 광주 동명동 '소소한 풍경'

'소소한 풍경' 카페 전경.

카페 한 켠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 1000권이 넘는 다양한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도 가능하다.

연둣빛 그늘막 아래 통유리창을 들여다보니 자꾸 들어가보고 싶어진다. 책이 가득 꽂힌 책장이 보이고 테이블에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 동명동주민센터 인근에 위치한 카페 '소소한 풍경'의 모습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소소한 풍경'은 작은 도서관이자 영화관이며, 음악회, 전시, 인문학 강의까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문화와 함께하는 작은 공간을 꿈꾸던 세 여성이 마음을 모아 일을 벌였다. 음악교사인 김윤아씨와 유아교육 전공 교수인 류정희씨, 사회복지사 박진경씨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공간을 구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류씨의 동생 환욱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페인트칠을 하고 카운터를 꾸미고 공간 곳곳을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문화공간을 꾸려가기 시작했다.

'소소한 풍경'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자그마한 공간 이미지와는 다르게 다채롭다. 작은음악회인 '소리 풍경',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갖는 '봄(視) 풍경', 인문학 강좌·독서모임인 'Book적 Book적', 영화모임인 '뒤끝작렬 영화수다', 취미 강좌 '소소한 꼼지락', 솔솔한 벼룩시장, 도서관, 하우스콘서트 등 10여가지의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시행사인 '봄 풍경'은 오픈 이후 끊이지 않고 이어 오고 있는 문화행사 중 하나다. 팝아트 배귀영 작가의 첫 전시를 시작으로 다큐멘터리 작가 최성욱 사진전, 자연을 담는 작가 김희련씨의 그림일기, 캘리그래피 작가 김지은의 '한글, 마음을 입다', 핸드메이드 공예가 김상미씨의 펠트공예, 금속공예가 이형훈의 공예가 전시됐다.

오는 6월 8일까지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류금상씨의 'MY MY'전이 열리고 있다. 만화를 주제로 한 그림을 전시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페이퍼토이도 판매한다. 만든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SNS를 통해 올리면 추첨을 통해 음료를 선물할 계획이다.

매월 한차례 작은음악회도 열린다. 클래식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활동하는 언더그룹 가수들이 즉석에서 광주를 찾았다가 공연을 하기도 한다. 지난 3월에는 유기농 펑크포크가수 사이가 전국투어공연 중 '소소한 풍경'에 들러 공연을 펼쳤다.

동명동 주민센터 인근 복합문화공간

- 작은음악회 – 소리 풍경
- 전시회 – 봄(視) 풍경
- 인문학 강좌·독서모임 – Book적 Book적
- 영화모임 – 뒤끝작렬 영화수다
- 취미 강좌 – 소소한 꼼지락

10여 개 문화프로그램 진행

오는 31일에는 '소리풍경'의 여덟 번째 소소한 이야기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이곳 음악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아이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공연을 담당하는 김윤아씨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단위 관객들을 더 환영한다"며 "아이들이다보니 간혹 어수선하기도 하지만 눈앞에서 하는 공연에 신기해하고 진지하게 연주를 듣는 모습이 좋다"고 말했다.

음악회는 공연장 장소가 좁아 사전 예약을 받는다. 공연 일정과 주제가 정해지면 SNS(www.facebook.com/2013sopung)나 블로그(http : //blog.naver.com/2013sopung)를 통해 소식을 알리는데, 대부분 1~2시간 이내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날씨가 좋을 땐 건물 옥상을 이용해 옥상 미니콘서트도 열린다. 공연료는 문화비 명목으로 음료를 포함해 1만원(어린이는 5000원)을 받고 있다.

카운터 뒤로 작은 공간이 하나 더 마련돼 있다. 세미나와 강좌 등이 열리는 교육공간이다.

인문학 강좌와 미술로 보는 그리스로마 신화 등 단기 강좌를 진행했고, 정기적으로는 풀꽃 도안으로 광목에 수를 놓는 풀꽃 자수, 조각보나 미니러너 등을 만드는 규방공예, 태교 바느질이 운영된다. 여성회원들을 중심으로 자수를 놓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랑방 공간으로도 이용된다.

대부분의 강의가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솔하게 대화를 주고 받으며 다양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므로 사전 예약은 필수다. 매주 월요일 휴무. 문의 070-7799-2013.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미나와 강좌가 진행되는 교육공간. 공연에 종종 사용되는 풍금은 어릴 적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